

글로벌 ETF 전략

2025년
5월

미국-중국 협상 대기: 성장 테마 탐색



[요약] 미국-중국 협상 대기: 성장 테마 탐색

5월 글로벌 ETF 전략: 미국-중국 대치 구도에서도 성장하는 테마

[핵심 성장 ETF]

- AI 테크(AIQ ETF): AI칩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 소프트웨어, 반도체, 하드웨어 등 다양한 AI 테마를 포괄적으로 접근
- 항생테크(2837.HK): 중국 정부가 2020년 말부터 보인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가 완화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 확대
- 인프라(PAVE ETF): 미국내 인프라 투자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 우크라이나 휴전도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추진 중
- 방산(SHLD ETF): 유럽 방산 지출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우려와 달리 방위비 증진될 전망. 관세 영향도 제한적
- 저가소비(RTH ETF):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인한 일부 반사이익도 기대
- 인도(NDIA ETF): 낮은 수출의존도와 내수 중심 높은 경제 성장률의 장점이 부각될 전망. 2018~19 무역분쟁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
- 중국 바이오(2820.HK): 중국의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인 수요 증진과 정부의 지원이 긍정적. 중국의 바이오 기술도 향상되는 중

5월 주식 시장 환경: 미국의 무역 협상에 쏠리는 시선

- 4월 주식시장은 상호관세 전후 높은 변동성을 경험.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되면서 반등. 우방국과의 협상 본격 진행
- 그러나 중국과는 아직 협상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 양측은 서로가 먼저 선제적인 완화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
- 미국과 중국 모두 협상에 나설 요인은 충분. 중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 여전히 높고, 미국도 유권자들의 반발이 높아지는 중
- 결국 협상에 진입하겠지만 시간은 다소 소요될 가능성. S&P500은 점진적으로 회복하겠지만 관세 영향 제한적인 테마별 접근 유효
- 관세 정책도 5월 중 본격 추진될 전망. 관세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일정 부분 완충해 줄 예정. 늦어도 7월초까지 통과 목표
- 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낮아진 상태. 구글, TSMC의 1Q25 실적에서 견고한 AI 수요 확인.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1Q 실적 확인 필요
- 대중 관세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저가소비 테마에도 주목. 소액 물품에 적용되던 면제 조항 폐지되며 Shein, Temu 등 불리
- 높은 내수 경제 중심 성장성을 보유한 인도에 주목. 추가 정부 차원 지원이 기대되는 중국 테크에 대해서도 긍정적 관점 유지

Top Picks

미국-중국 대치 구도에서도 성장하는 테마

- AI칩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 1Q25 구글과 TSMC 실적은 긍정적
- 관세 영향 제한적인 방산과 테마 주목. 유럽에서의 구매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우려와 달리 방위비 증진될 전망
- 대중 관세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저가소비 테마 관심. 소액 물품에 적용되던 면제 조항 폐지되며 Shein, Temu 등 불리
- 낮은 수출 의존도와 높은 내수 경제 성장성을 가진 인도도 주목. 추가 정부 차원 지원이 기대되는 중국 테크에 대해서도 긍정적 관점 유지

Top Picks

티커	테마	ETF명	AUM (백만달러)	수수료 (%)	Top 10 비중 (%)	수익률 (%)			투자포인트
						1M	3M	YTD	
PAVE	인프라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F	7,390	0.5	31.9	0.9	-9.8	-6.1	미국내 인프라투자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 우크라이나 휴전도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추진 중
AIQ	AI 테크	Global X Artificial Intelligence & Technology ETF	2,872	0.7	33.5	0.7	-8.9	-4.8	AI칩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 미국 빅테크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 레벨까지 완화
SHLD	방산	Global X Defense Tech ETF	1,616	0.5	65.1	9.3	29.0	36.0	유럽 방산 지출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우려와 달리 방위비 증진될 전망. 관세 영향도 제한적
RTH	저가소비	VanEck Retail ETF	234	0.4	71.7	0.7	-6.3	0.2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인한 일부 반사이익도 기대
2837	항생테크	Global X Hang Seng TECH ETF	197	0.5	69.1	-9.1	5.9	11.7	중국 정부가 2020년 말부터 보인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가 완화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 확대
2820	중국 바이오	Global X China Biotech	48	0.7	53.2	-3.3	18.4	15.9	높은 성장성을 보유하고 관세 영향에 노출되지 않음
NDIA	인도	Global X India Active ETF	42	0.8	55.8	4.7	7.8	2.0	낮은 수출의존도와 내수 중심 높은 경제 성장률의 장점이 부각. 2018 무역분쟁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

주: 4월 28일 기준, AUM 순으로 정렬/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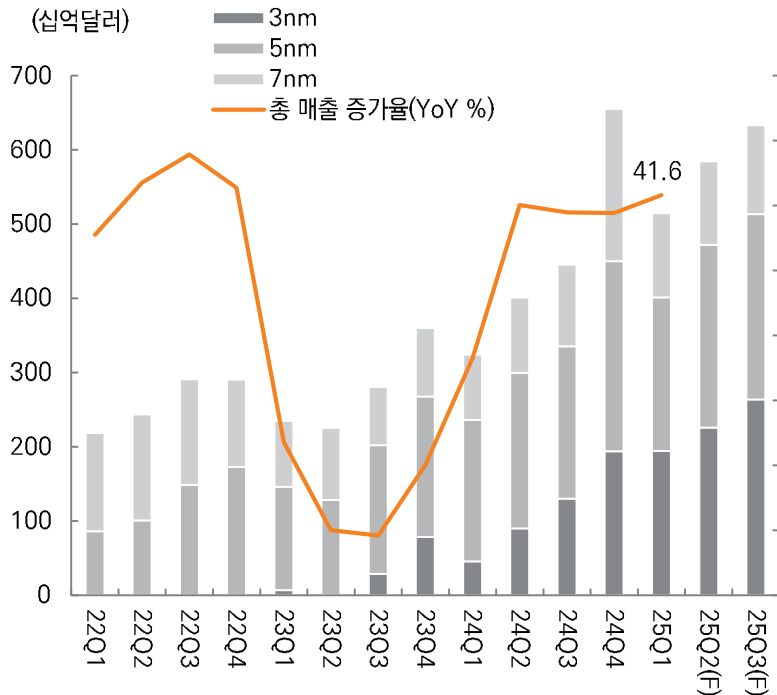
5월 글로벌 ETF 전략

AI 테크: AI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한 편

1Q25 구글, TSMC 실적: AI 수요는 여전히 강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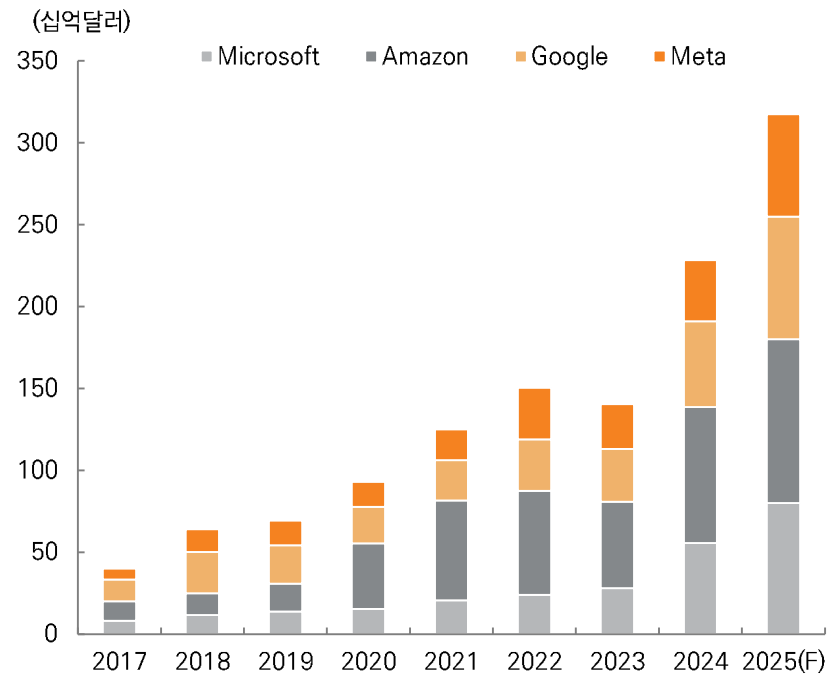
- 빅테크 기업들의 1Q25 실적 시즌 개시. 구글의 1Q25 매출은 902.3억달러(예상치 891.7억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12% 상승.
-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도 전년대비 28% 증가해 예상치 부합. 25년 Capex 가이드선 유지한 가운데 OP마진 개선 확인된 점이 긍정적
- TSMC 1Q 실적에서도 AI칩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재확인. 전체 매출 42% 상승, 첨단 AI칩 생산에 사용되는 3nm 공정 매출 큰 폭 증가
- TSMC CEO는 관세로 인한 고객사들의 변화는 탐지되지 않았다는 입장. 2025년 매출 가이드선(YoY 20%중반대 상승)도 유지

TSMC 생산 공정별 매출 증가율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빅테크 기업들의 25년 Capex 전망치: 구글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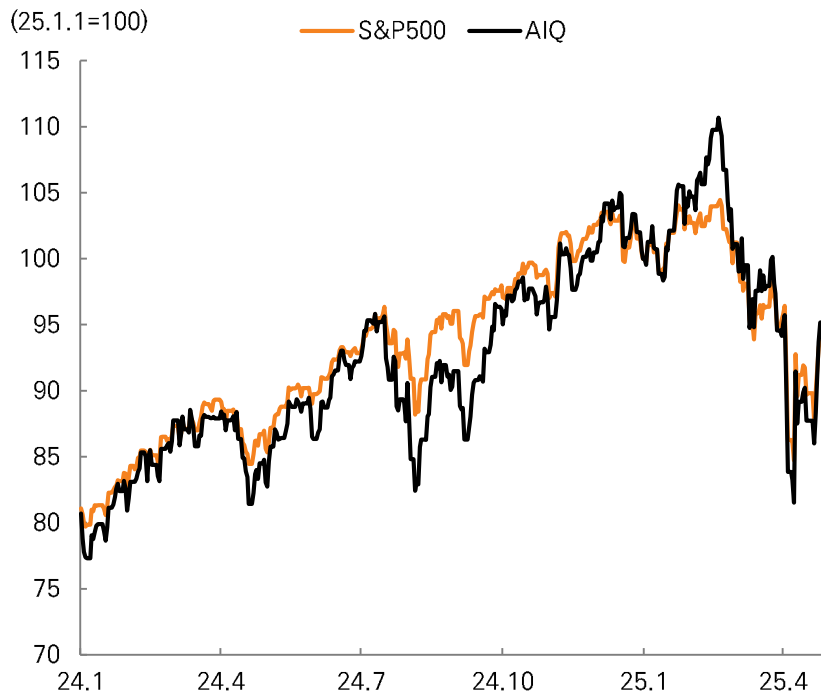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IQ ETF: AI 테크

Global X Artificial Intelligence & Technology ETF

- AIQ는 미국 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로 85개의 AI 기업으로 구성.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비중은 33%로 AI 생태계 전반에 투자
- Tencent, Alibaba Group, Netflix, Samsung Electronics, Palantir 등이 비중 상위 종목
-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39.3%), 반도체 및 장비(15.6%), 하드웨어(11.2%) 등으로 구성
- 다양한 AI 기업들을 포괄하는 AIQ가 가장 유리. 낮은 집중도는 AI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기업에 특정된 리스크 분산에 유리

S&P500과 AIQ ETF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IQ ETF 상위 10개 종목

종목 이름	편입비 (%)	수익률 (%)		
		1M	3M	YTD
Tencent	4.2	-6.1	19.2	14.7
Alibaba	3.9	-10.6	23.3	39.6
Netflix	3.7	18.9	14.3	24.6
Samsung Electronics	3.5	-7.3	3.9	4.9
Palantir	3.3	33.5	42.9	51.6
Apple	3.1	-3.6	-11.8	-16.1
Cisco Systems	3.0	-6.6	-4.4	-4.0
Microsoft	2.9	3.3	-12.5	-7.2
IBM	2.9	-3.2	4.7	7.4
Meta Platforms	2.9	-4.7	-18.5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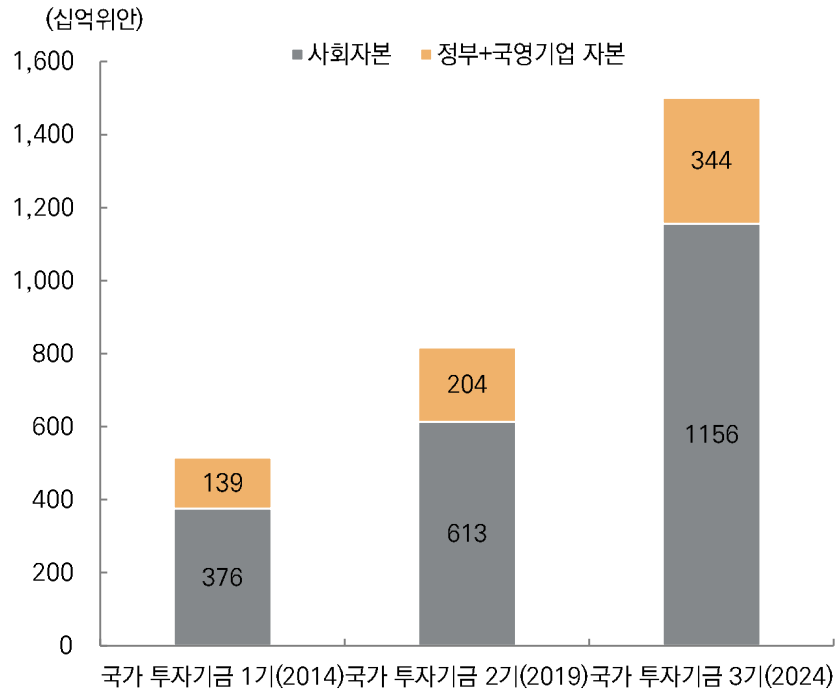
주: 4월 28일 기준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테크: 정부 지원 확대 예상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중국 내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로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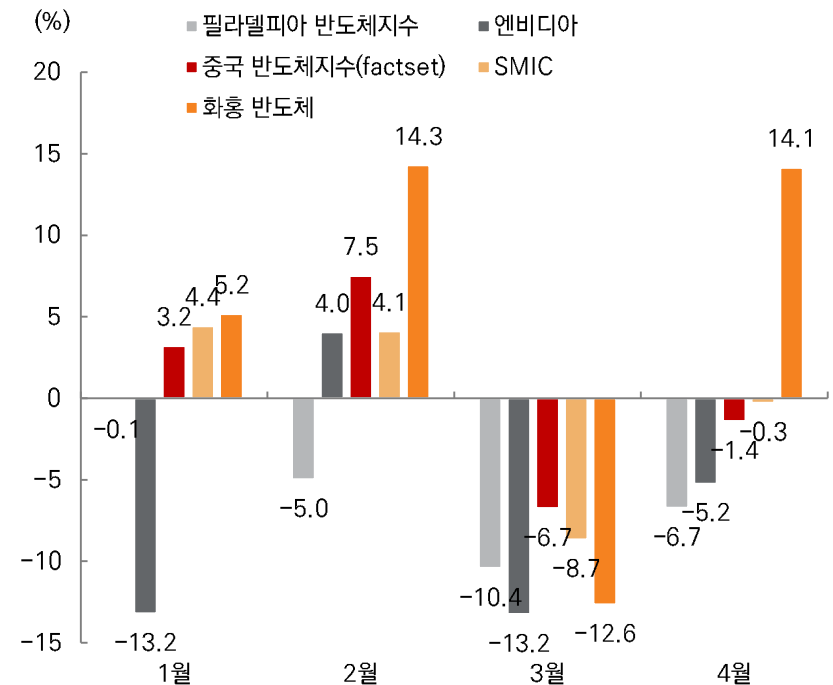
-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전용 칩인 H20 및 동등한 성능의 칩 판매를 제한하는 등 AI칩 수출 강화 시도
- 중국도 자체 AI칩 개발에 더 집중할 전망.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 투자 기금 3기 규모는 2기의 1.8배
- 25년 들어 미국 반도체 대비 중국 반도체가 높은 성과를 기록. 미국 반도체는 관세와 수출 규제 리스크에 노출

중국의 국가C회로 산업 투자기금 출자 규모



자료: KIEP,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중국 반도체)

미국, 중국 반도체지수 및 주요 기업 월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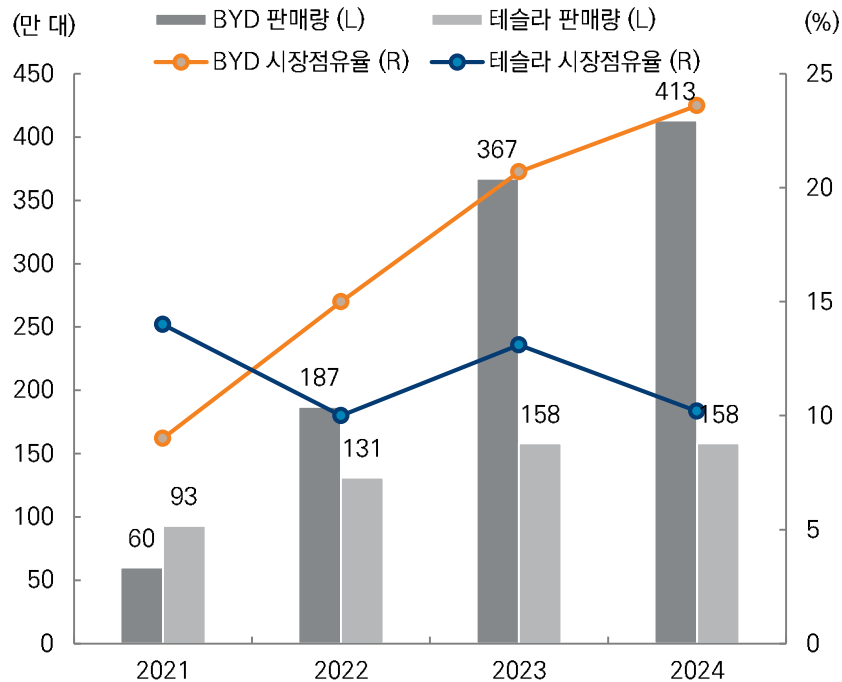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4월 수익률은 4월 24일 기준

중국 테크: 전기차 부문에서의 기술적 우위

BYD 신기술 공개에 글로벌 전기차 주도권 격차 확대

- 전기차 시장 내 기술 격차 축소 및 공급 과잉 조짐 등으로 경쟁 심화가 진행되며 주요 브랜드 간의 주가 차별화 진행
- 2022년 BYD의 판매량이 테슬라를 넘어서며 시장점유율 역전. 이후 격차 확대되며 2024년에는 두 브랜드 간의 점유율 차이는 약 11%p
- 각 브랜드의 주요 모델을 비교해보면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강점을 보이는 반면, 최대 충전 속도와 가격 경쟁력에서는 BYD가 우위
- BYD는 5분 충전으로 400km 주행이 가능한 새로운 초고속 충전기술을 공개. 중국내 시장 점유율 더욱 높아질 전망

BYD와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22년 이후 역전



주: 2024년은 1~11월 누적 데이터
자료: SNE Research,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별 중형 SUV 모델 사양 비교

브랜드	모델명	출시 연도	가격	주행거리 (WLTP)	최대 충전 속도	가속 시간 (100km/h)
Tesla	Model Y Long Range	2023	약 \$54,000	533km	250kW	5.0초
BYD	Sealion 7	2024 (예정)	약 \$38,000 ~ \$45,000 (중국 기준)	502km	500kW	4.5초
Hyundai	Ioniq 5	2024	약 \$60,000	448km	350kW	3.4초
Kia	EV9 AWD Long Range	2023	약 \$56,000 ~ \$70,000	497km	210kW	5.3초
VW	ID.4 Pro	2023	약 \$49,000	531km	135~175kW	6.2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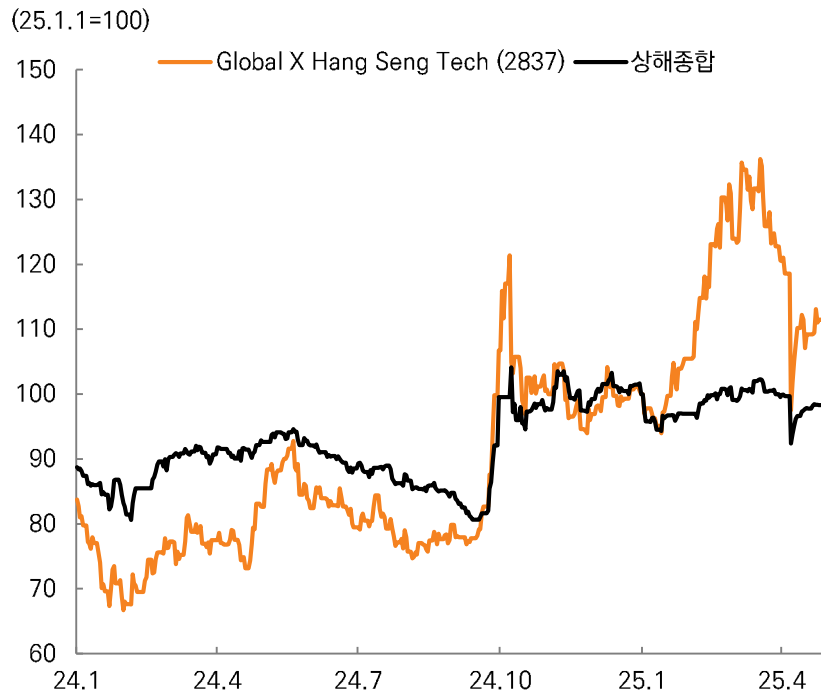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837 HK: 항생 테크

Global X Hang Seng TECH ETF

- Global X Hang Seng TECH ETF(이하 2837)은 항생테크 지수를 추종하는 홍콩에 상장된 ETF
- 상위 보유 종목은 텐센트(8.6%), 샤오미(8.4%), 알리바바(8.0%), SMIC(7.7%) 순이며 모두 홍콩 상장 주식으로 구성
- 작년 말 이후 항생테크가 중국 본토 지수인 상해종합지수를 아웃퍼폼 했으며 올해 초 딥시크 발표 이후 격차 확대
- 중국에 대해서는 내수주 보다는 테크 위주의 선별 접근 전략 여전히 유효

2837과 상해종합지수의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837 ETF 상위 10개 종목

종목 이름	편입비 (%)	수익률 (%)		
		1M	3M	YTD
Tencent	8.6	-6.1	19.2	14.7
Xiaomi	8.4	-7.0	24.0	37.7
Alibaba	8.0	-12.1	30.5	39.8
SMIC	7.7	-5.4	19.5	42.8
Meituan	7.0	-19.8	-13.4	-15.4
JD.com	6.8	-23.1	-19.4	-7.0
Kuaishou	6.6	-9.7	20.3	22.5
XPeng	5.5	-0.3	30.6	65.2
Li Auto	5.4	-7.2	0.6	-1.6
NetEase	4.9	3.7	1.5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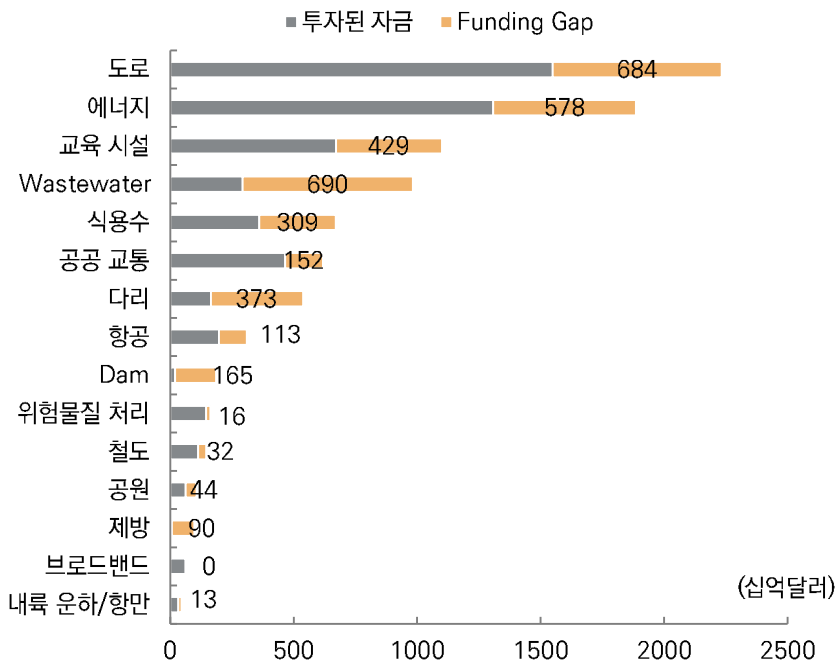
주: 4월 28일 기준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인프라: 필요로 하는 투자금 높음

우크라이나 재건 규모는 5,500억달러 수준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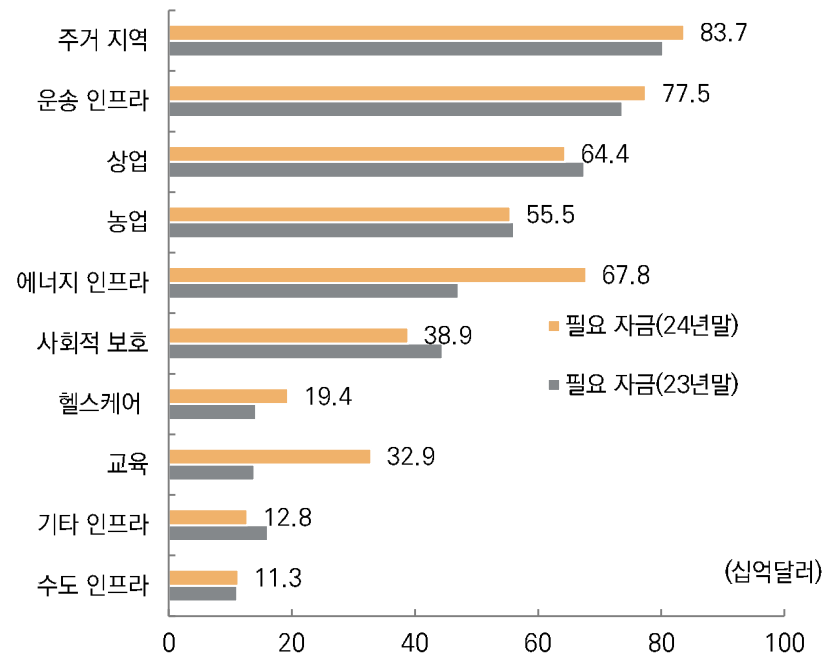
- 최근 ASCE에서 발표한 미국 인프라 점수는 개선(C- → C)됐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님.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자금이 필요
- 또한 트럼프의 관세 여파로 미국으로의 제조업 투자도 더욱 늘어날 가능성. 올해 반도체, 자동차 기업들 중심으로 미국 투자 확대 발표
-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은 지연되고 있지만 휴전 기대감 자체는 유효. 러시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형태로 미국 주도 협상 진행
- 세계은행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자금은 24년 말 기준으로 약 5,236억달러로 추정. 에너지 인프라가 가장 큰 타격에 노출

미국 인프라 부문별 투자 부족분



자료: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2025),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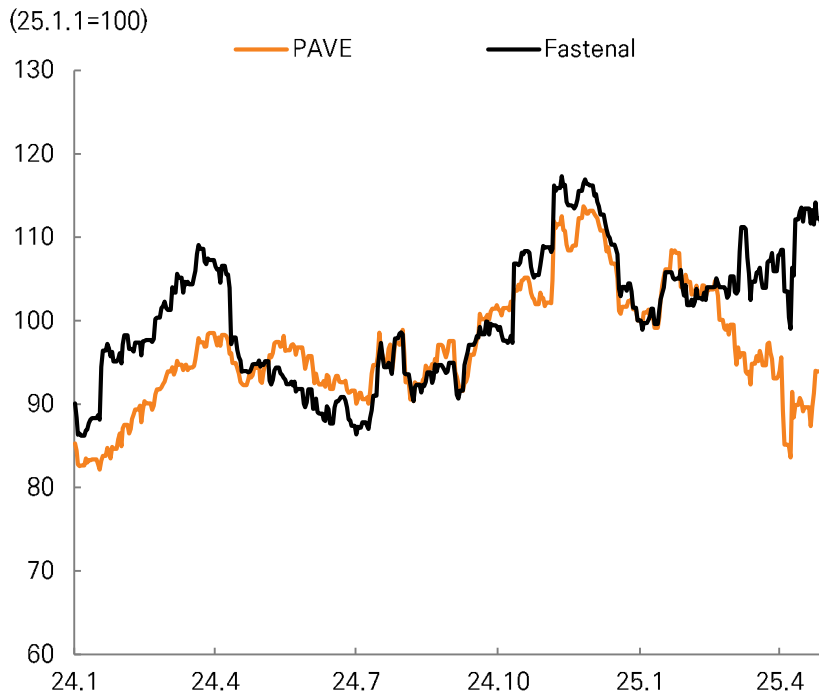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RNDA4),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PAVE ETF: 인프라 및 전력기기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F

- PAVE는 미국 인프라 개발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 인프라 정책 모멘텀, 구조적인 전력 수요 증가 수혜
- 업종별로는 생산자 제조(29.9%), 비에너지 광물(17.4%), 산업 서비스(13.1%), 전기 기술(13.0%), 운송(7.2%) 등으로 구성
- 실질적인 재건 수혜 분야(산업재, 소재) 비중이 높은 PAVE ETF가 유사 테마 ETF대비 상대적으로 유리
- Fastenal 같은 건설, 인프라에 필수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견고한 흐름을 보이는 중

PAVE ETF와 구성 종목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PAVE ETF 상위 10개 종목

종목 이름	편입비 (%)	수익률 (%)		
		1M	3M	YTD
Fastenal	3.7	5.2	7.1	11.4
Howmet Aerospace	3.7	5.1	7.9	24.7
Deere	3.4	-1.1	-4.1	8.6
CRH	3.2	5.6	-5.6	0.6
Sempra	3.1	8.4	-7.5	-13.8
Parker-Hannifin	3.0	-0.7	-10.4	-6.1
Trane Technologies	3.0	5.8	-3.9	-4.9
Norfolk Southern	3.0	-3.8	-12.1	-5.5
Union Pacific	3.0	-8.4	-14.7	-6.8
CSX	2.9	-4.3	-14.7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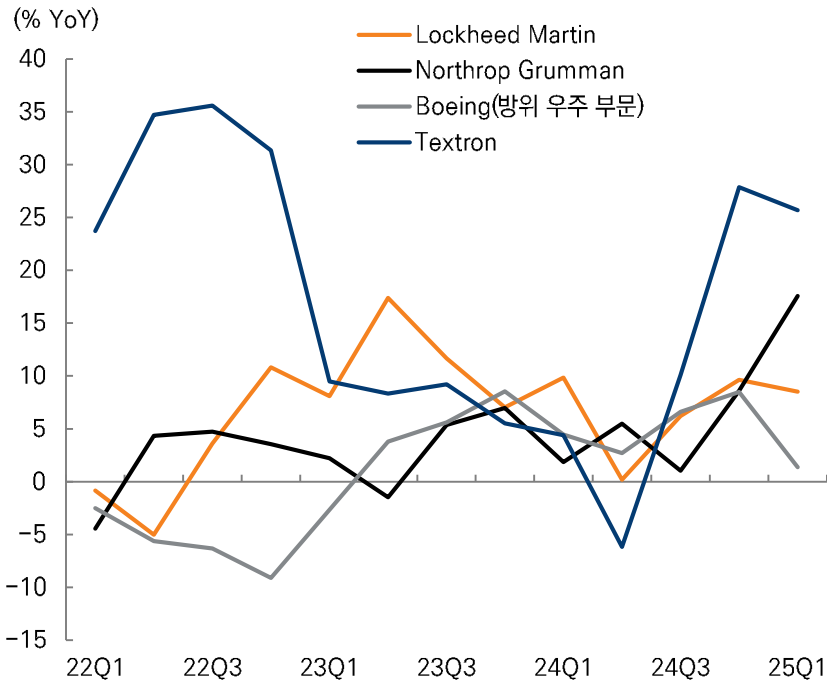
주: 4월 28일 기준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방산: 관세 우려에도 수요 견고

글로벌 무역 갈등과 관세 우려에도 주요 방산기업들 수주 견고

- 최근 미국 주요 방산 기업들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관세 영향과 글로벌 무역 갈등 격화에도 방산 수요가 견고함을 확인
- EU의 Buy European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방산업체 수주 잔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차기년도 미국 국방예산도 1,500억달러 증액을 추진. DOGE로 인한 감축 우려 해소
- 항공기와 함께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미국 우방국들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방산품 확대도 약속할 가능성 높음

주요 방산 기업들 수주 잔고 증가율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관세 관련 미국 기업들의 코멘트

기업	코멘트
Lockheed Martin	- 관세가 영향 제한적. 기존 공급망 계약을 통해 피해 회피 가능 - 주요 제품들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매우 견조, 관세 리스크를 상쇄
Northrop Gruman	- 현시점에서 무역 정책이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평가 - 특정 부품의 수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미 시행 중
RTX	-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인해 최대 \$0.85B 세전 이익 감소 가능성 - 우려는 있지만 연간 가이드언스는 변경 없이 유지 중
GE Aerospace	- 관세로 인한 마진 하락 방어를 위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함 - 엔진 부품 수급 차질 우려
Boeing	- 방산 계약 특성(고정가 계약 등)으로 관세 영향 제한적 - 일부 부품의 수급 문제는 있지만, 충분한 재고 확보 완료
General Dynamics	- 민간 항공기 수출 사업 외에는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현재로서는 관세 영향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추측을 수 밖에 없음
L3Harris Technology	- NATO 및 유럽과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 중 -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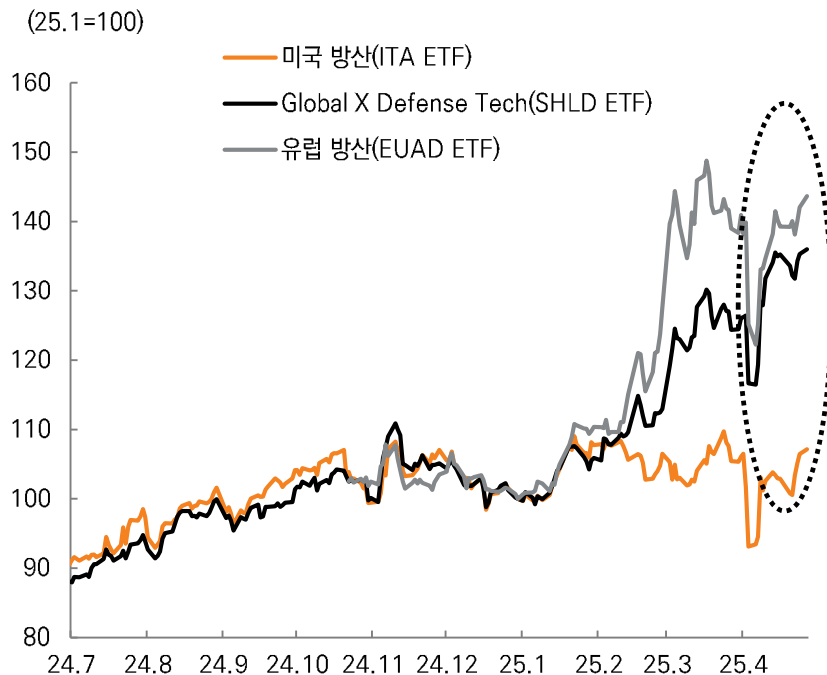
자료: 각 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SHLD ETF: 방산

Global X Defense Tech ETF

- 방산은 SHLD ETF로 접근. 보잉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약 30% 수준의 유럽 비중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장점
- SHLD는 Palantir(10.7%), Rheinmetall(9.1%), RTX(6.6%), Northrop Grumman(6.0%) 등이 상위 보유 종목
- 방산은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안보 영향으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며 성장할 전망

SHLD ETF와 미국, 유럽 방산 기업들의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SHLD ETF 상위 10개 종목

종목 이름	편입비 (%)	수익률 (%)		
		1M	3M	YTD
Palantir	10.7	33.5	42.9	51.6
Rheinmetall	9.1	3.9	85.1	120.7
RTX	6.6	-5.3	-2.8	7.8
Northrop Grumman	6.0	-5.6	-0.7	3.0
General Dynamics	5.9	1.1	3.6	3.2
Thales	5.8	-5.1	51.8	68.8
Leonardo	5.7	-2.7	50.0	69.1
Lockheed Martin	5.6	7.9	4.1	-2.0
Hanwha Aerospace	5.1	31.3	101.0	153.3
BAE Systems	4.8	7.4	34.3	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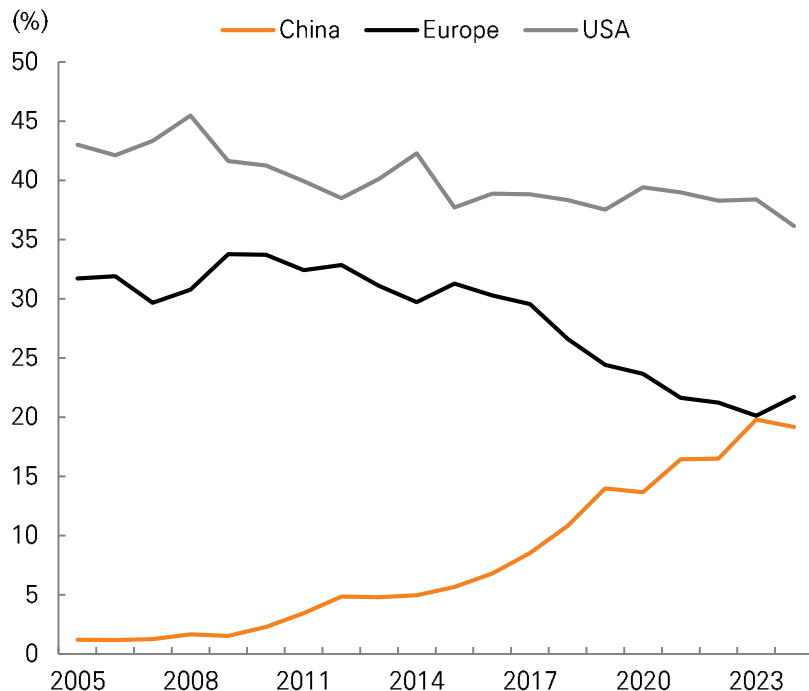
주: 4월 28일 기준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바이오텍: 개선되는 기술력

중국 정부 투자가 받쳐주는 중국 바이오텍 산업의 성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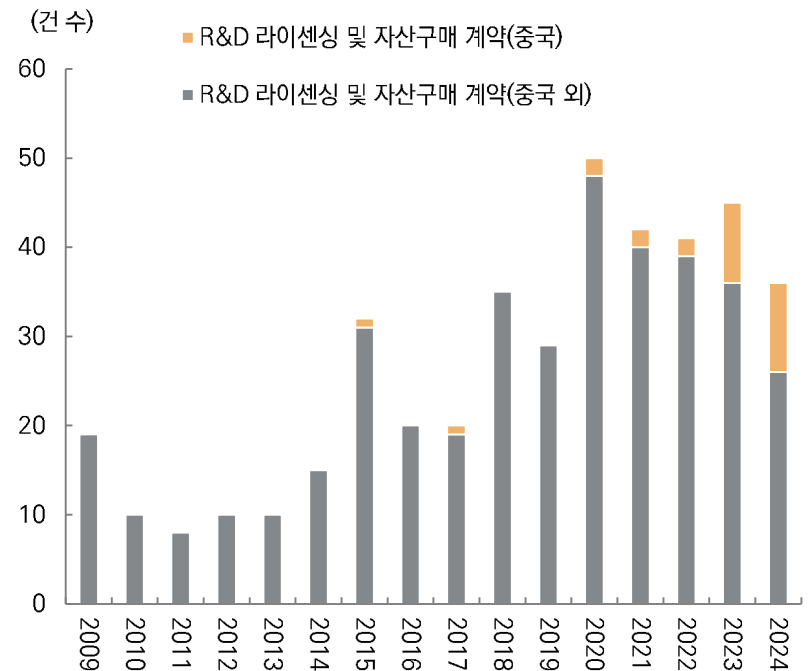
- 중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2040년이면 인구의 약 28%가 60세 이상에 이를 전망. 이에 의료 산업에 대한 수요 증대
- 중국 정부는 2022년부터 최초로 바이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적극적으로 투자
-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지원으로 중국의 바이오 분야 PCT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2023년 1,920건으로 10년 동안 720% 이상 증가
- 외국 기업들도 중국 기업들과 더 활발하게 거래하는 모습. 중국 기업들 대상 딜 건수는 2022년부터 비약적으로 증가

PCT 부합하는 생명공학 분야 국제특허 출원 건수 비중



자료: WIPO,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활발해지는 중국 기업들과의 딜



자료: Bloomberg, Dealforma,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820 ETF: 중국 바이오텍

Global X China Biotech ETF

- 2820은 홍콩에 상장된 ETF로 중국 본토 및 홍콩에 상장된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 약 40개에 분산 투자하여 바이오 생태계 전반에 투자
- 정부 지원, 기술 혁신, 고령화 수요로 인한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중국 바이오 시장의 장기 성장 수혜 기대
- 상위 보유 종목은 Innovent Biologics(11.4%), Wuxi Biologics Cayman(9.7%), Jiangsu Hengrui(8.6%) 순
- 그 중 Innovent Biologics는 항체 기반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는 제약사로 올해 초 Roche와 ADC 후보물질 라이선스 계약하며 주가 급등

2820과 구성 종목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820 ETF 상위 10개 종목

종목 이름	편입비 (%)	수익률 (%)		
		1M	3M	YTD
Innovent Biologics	11.4	17.3	64.0	48.1
Wuxi Biologics Cayman	9.7	-14.7	24.0	30.1
Jiangsu Hengrui	8.6	2.8	11.9	8.9
WuXi AppTec	8.0	-14.3	4.9	5.5
Akeso	7.5	16.9	43.3	43.7
Sino Biopharmaceutical	5.6	2.9	36.2	20.0
Shanghai RAAS Blood Products	4.1	-4.0	-4.0	-7.3
Zai Lab	3.8	-13.0	21.6	23.8
Hansoh Pharmaceutical	3.7	-1.5	30.0	34.5
MGI Tech	2.9	-8.6	83.1	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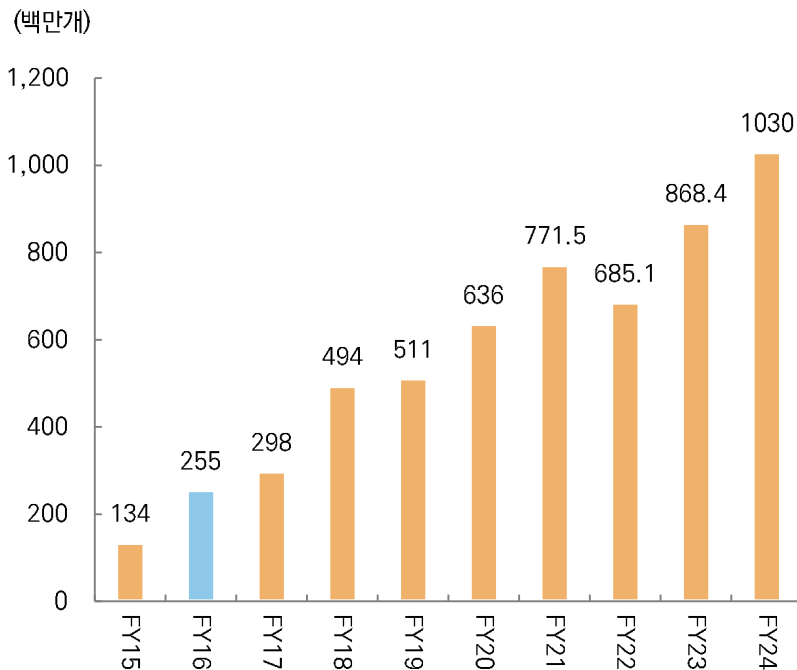
주: 4월 28일 기준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저가 소비: De-Minimis 반사이익

중국산 저가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 예정(5/2): 미국 할인점들에게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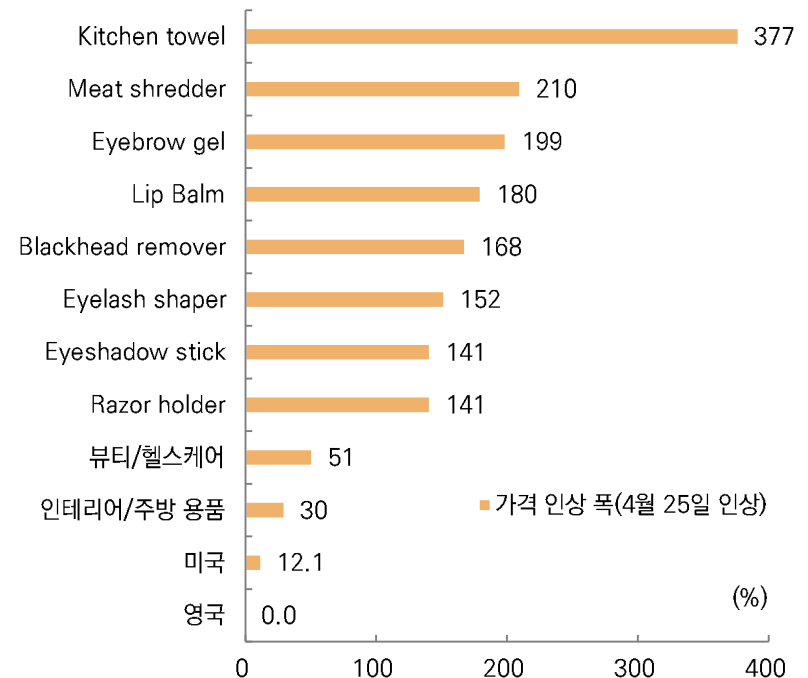
- 트럼프 행정부는 800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를 해주는 조항(De-minimis) 폐지. Shein, Temu 등 중국 기업에게 불리
- 5월 2일부터 120%의 관세와 100달러의 우편비 부과 예정. 실제로 Shein은 지난주 일부 상품 가격을 최대 377% 인상
- 중국 저가 기업들의 후퇴로 Dollar General, TJX 같은 미국내 유통망 비중이 높은 미국 할인점 유리
- 또한 인도와의 협상에서 e-commerce 규제 완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음. 현재 외국계 기업들은 자체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플랫폼만 운영 중. 월마트는 Flipkart를 인수, 아마존은 직접 개입. 인도 온라인 시장은 600억달러 규모로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

2016년 이후 De-minimis 규정을 활용한 수입량 급증



주: 2016년부터 De-Minimis 기준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Shein의 가격 인상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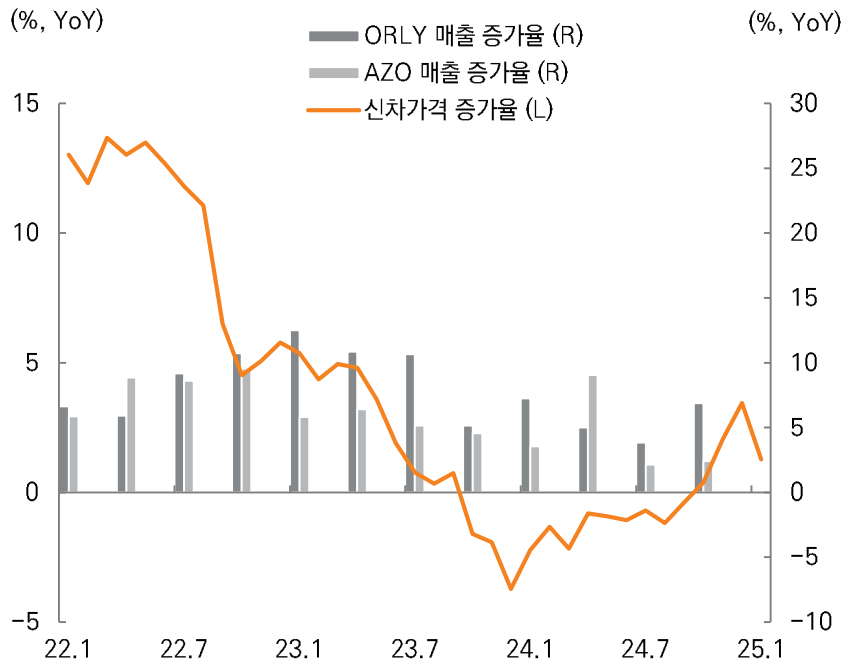
주: Shein에서 가장 인기있는 뷰티/헬스케어, 인테리어 분야 품목 기준. 미국은 50개 품목 샘플 기준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정비: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주는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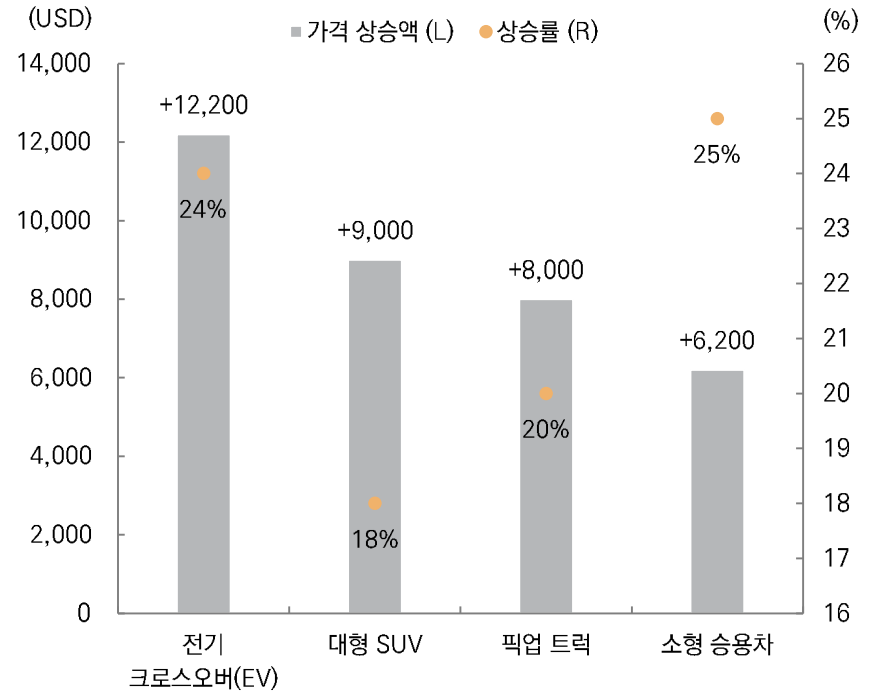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신차 가격 상승은 불가피

- 현재 미국 신차 평균 가격은 약 5만 달러 수준으로 21년부터 약 30% 상승. 여기에 25% 관세가 붙을 경우 가격 인상이 불가피
- 신차 가격 인상은 차량 유형과 부품 조달 구조에 따라 10~25% 범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 특히 전기차 및 소형 승용차 상승률 부각
- 관세 부과 이후 신차 가격이 급등하면 중고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
- 실제로 21년에 신차 가격이 빠르게 상승 후 자동차 부품/정비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 상승 국면이 뒤따라 왔음

미국 신차 가격 증가율과 부품/정비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 추이



차량 유형별 관세 부과시 가격 상승률 추정



자료: CEIC,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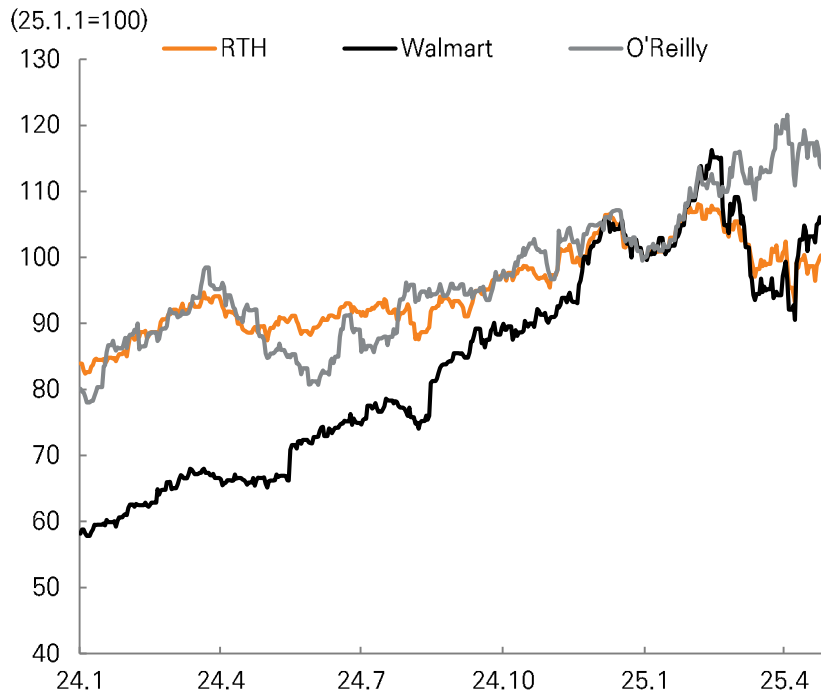
주: 캐나다, 멕시코 25%,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적용을 가정
자료: AE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RTH ETF: 저가 소비

VanEck Retail ETF

- RTH는 핵심 리테일 기업들에 투자. 월마트, 코스트코, TJX 등 저가 소매점과 O'Reilly, Autozone 같은 부품/정비 기업도 포함
-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낮아진 아마존을 포함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아마존의 12MF PER은 26으로 지난 5년간 최저 수준까지 하락
-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CVS Health, McKesson과 같은 헬스케어 유통 기업들의 비중도 긍정적
- 상대적으로 종목별 비중이 고르게 분포된 XRT에 비해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성과도 아웃퍼폼 중

RTH와 구성 종목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RTH ETF 상위 10개 종목

종목 이름	편입비 (%)	수익률 (%)		
		1M	3M	YTD
Amazon	18.7	-2.6	-21.2	-14.4
Walmart	9.5	11.8	-2.1	5.4
Costco Wholesale	9.0	5.3	2.1	6.8
Home Depot	7.4	-0.3	-14.8	-8.2
TJX	5.4	7.5	2.2	5.2
McKesson Corp	4.8	4.7	16.1	22.8
O'Reilly Automotive Inc	4.6	-2.7	7.2	15.5
CVS Health Corp	4.5	-3.3	13.3	44.6
Lowe's Cos Inc	4.3	-3.2	-16.4	-10.4
JD.com Inc	3.6	-21.4	-20.4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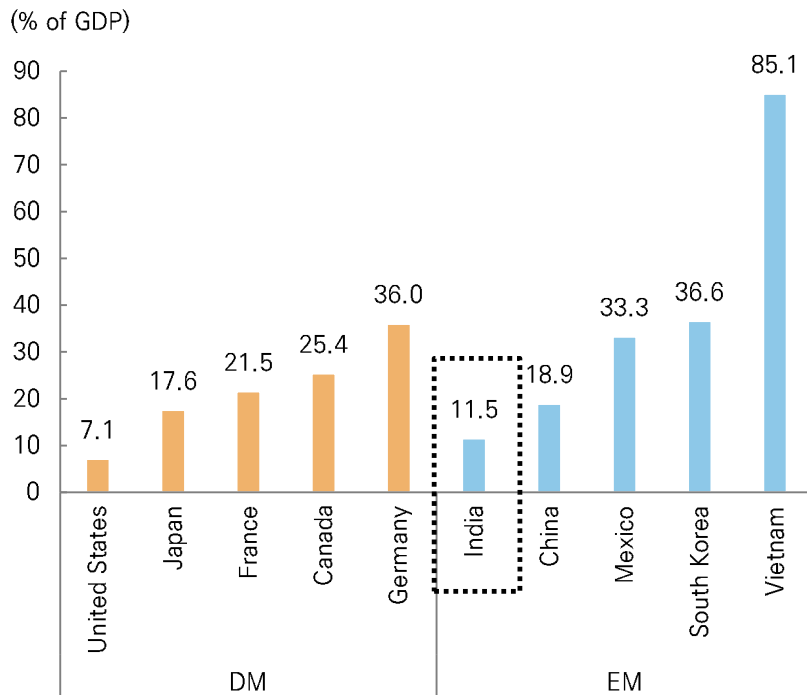
주: 4월 28일 기준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인도: 관세 불확실성의 대체 투자처

낮은 수출 의존도와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로 안정적인 성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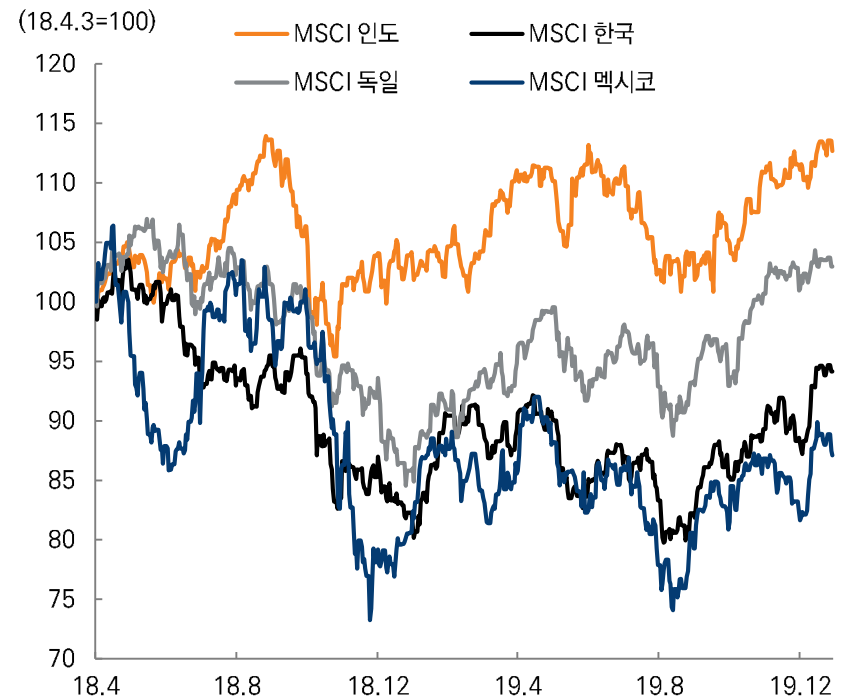
- GDP 대비 총 수출액 기준의 수출 의존도를 보면, 인도는 11.5%로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
- 낮은 무역 의존도로 인해 인도 증시는 관세 불확실성이나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외부 교역 리스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음
- 실제로 2018~19년 미중 무역 전쟁 당시, 한국, 독일, 멕시코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증시 대비 인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 또한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도 수혜 가능.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는 흐름

주요국 GDP 대비 수출 비중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프랑스는 2023년 기준, 나머지 국가들은 2024년 기준

2018~19 미중 무역 분쟁 당시 글로벌 증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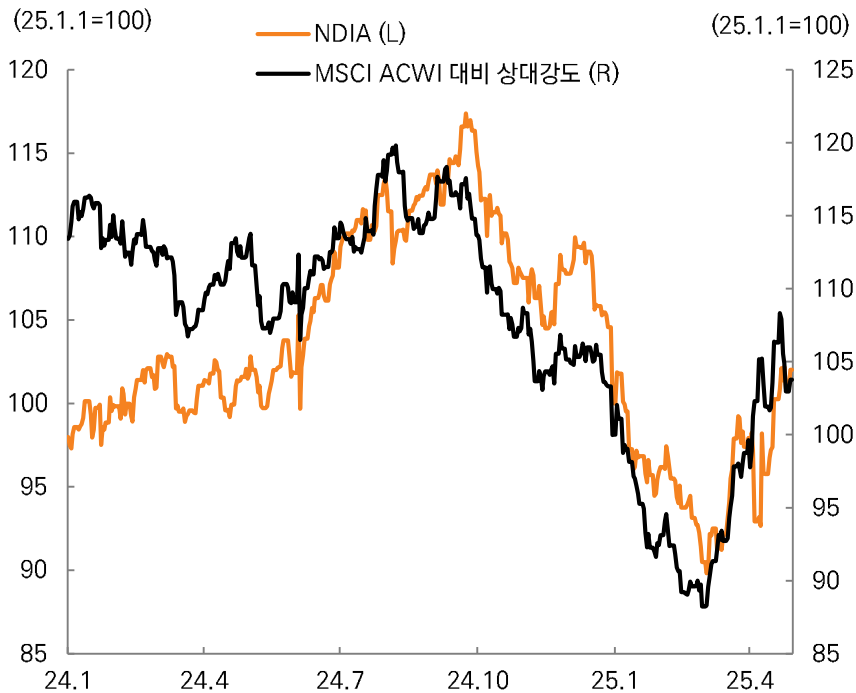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기준일(18.4.3)은 트럼프 1기 무역 분쟁이 시작된 날

NDIA ETF: 인도

Global X India Active ETF

- NDIA는 인도 대표 기업 30여 개에 투자하는 ETF로 대형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
- 금융(34.3%), 자유소비재(12.7%), 에너지(11.0%), IT(10.6%), 소재(7.9%) 등 내수 중심 업종의 비중이 높은 편
- 인도 증시가 작년 9월 이후 기업 실적 기대감이 소폭 완화되며 주가 조정을 거쳐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 점도 긍정적
- INDY는 작년 말부터 글로벌 증시를 언더퍼폼 했으나 최근 들어 글로벌 증시 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이며 안정적인 흐름

INDY와 MSCI ACWI 대비 상대강도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NDY ETF 상위 10개 종목

종목 이름	편입비 (%)	수익률 (%)		
		1M	3M	YTD
HDFC Bank	9.2	5.0	15.0	8.3
Reliance Industries	8.5	7.6	11.2	11.6
ICICI Bank	8.0	6.8	16.1	12.3
Axis Bank	5.4	8.2	21.2	12.0
Infosys	4.7	-4.6	-19.5	-20.9
Larsen & Toubro	4.4	-4.7	-2.5	-7.8
United Spirits	4.1	11.1	11.4	-4.2
Bharti Airtel	3.9	5.1	12.6	14.7
Tata Consultancy Services	3.9	-4.5	-14.8	-15.9
UltraTech Cement	3.8	5.3	7.2	6.0

주: 4월 28일 기준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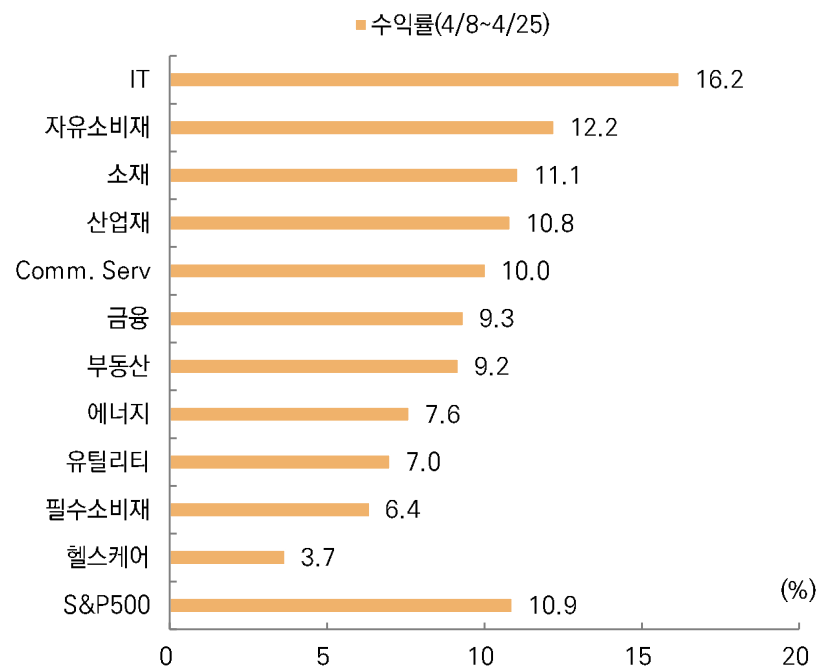
5월 주식시장 환경

4월 리뷰: 상호관세 발표 후 안정화

예상보다 강했던 트럼프의 상호(reciprocal) 관세: 앞으로의 핵심은 미중 협상 개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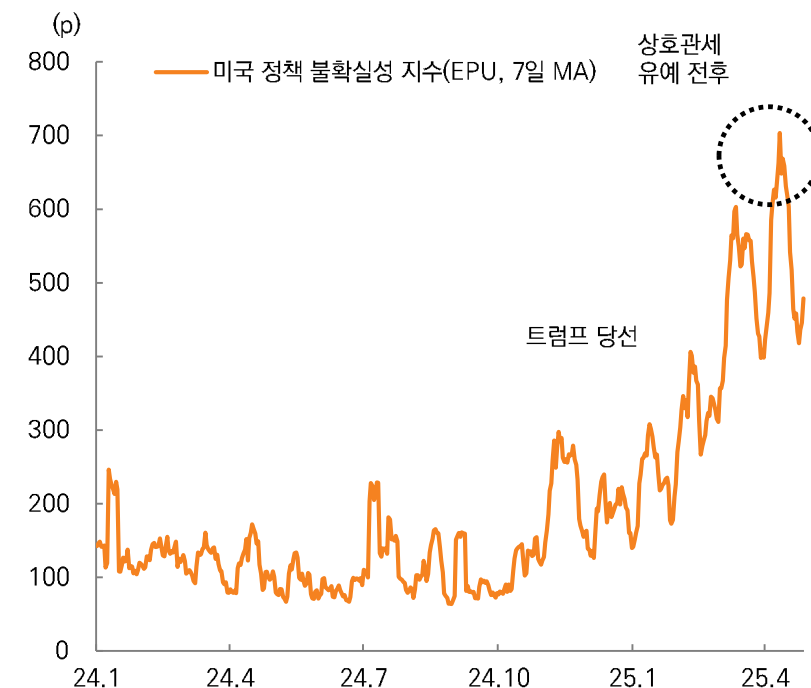
- 4월 S&P500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변화로 높은 변동성을 경험. 4월 9일 상호 관세 유예 후 강하게 반등. 타격이 컸던 IT, 자유소비재 등의 업종의 반등 폭이 컸음
- 정책 불확실성도 고점에서 내려온 상태. 중국과도 갈등 수위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의 협상에 서두르는 모습
- 한국, 일본, 인도, 영국, 호주는 우선 협상국으로 분류. 이 중에서 한국, 일본, 인도와는 본격적으로 협상 중

상호관세 유예 후 S&P500 업종별 수익률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고점에서 내려온 미국 정책 불확실성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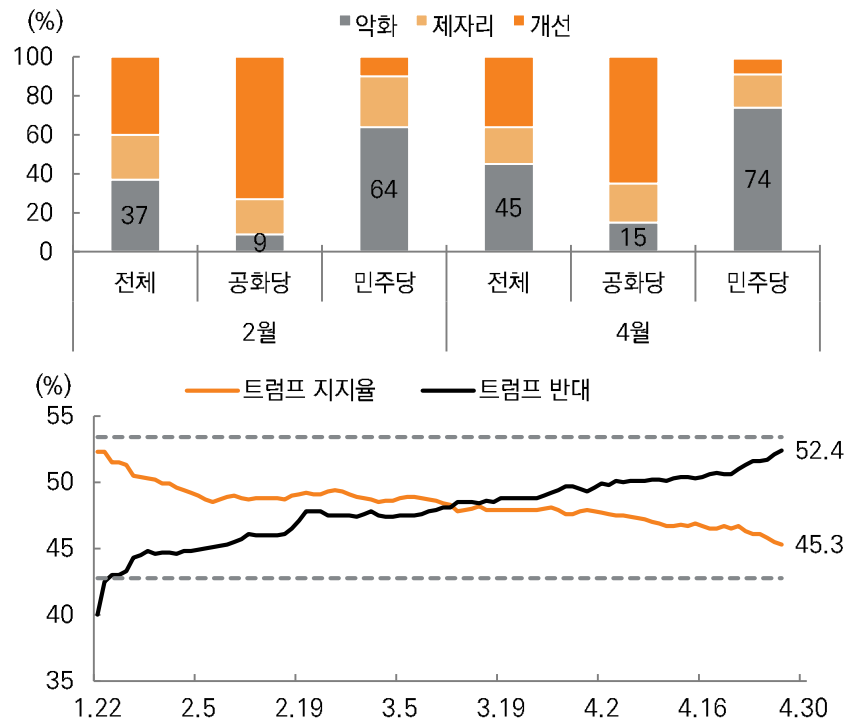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중국 협상: 미국의 협상 요인

미국 협상 요인: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의 커지는 반발,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부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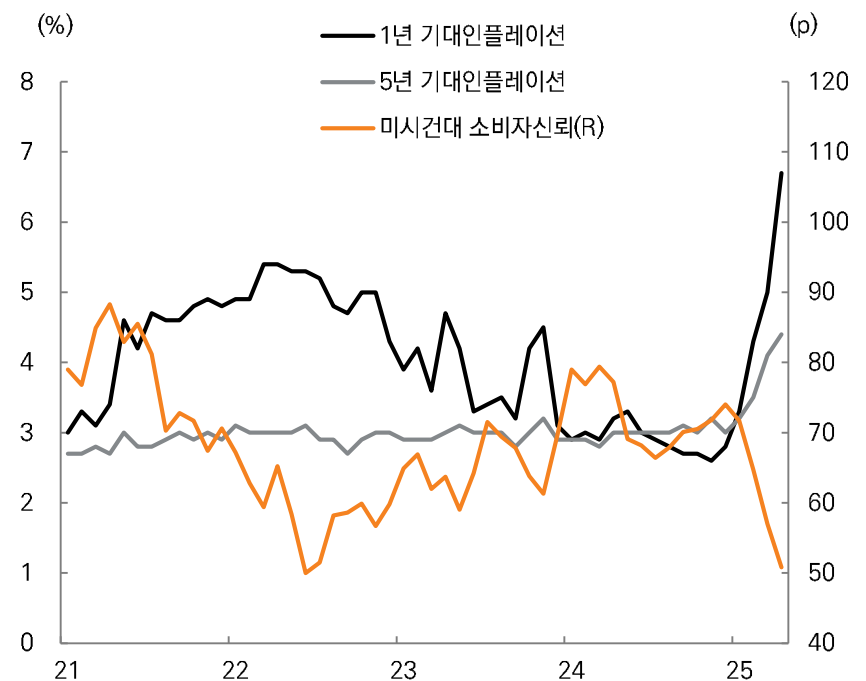
- 미국은 전반적인 달러 자산의 약세와 유권자들의 반발이 협상을 유도. 특히 경기가 악화됐다고 평가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의 비중 상승
-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진입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중국과의 협상이 필요.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우려 고조
- 또한 월마트, 타겟, 홈디포 CEO와의 긴급 회동을 가지기도 했음. 인플레이션과 재고에 대한 논의 진행
- 트럼프와 베센트 재무장관도 현재의 고관세율은 지속가능 하지 않고, 0%은 아니지만 145%에서는 상당 수준 내려올 것이라고 발언

악화되는 트럼프 지지율과 경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자료: Pew Research,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소비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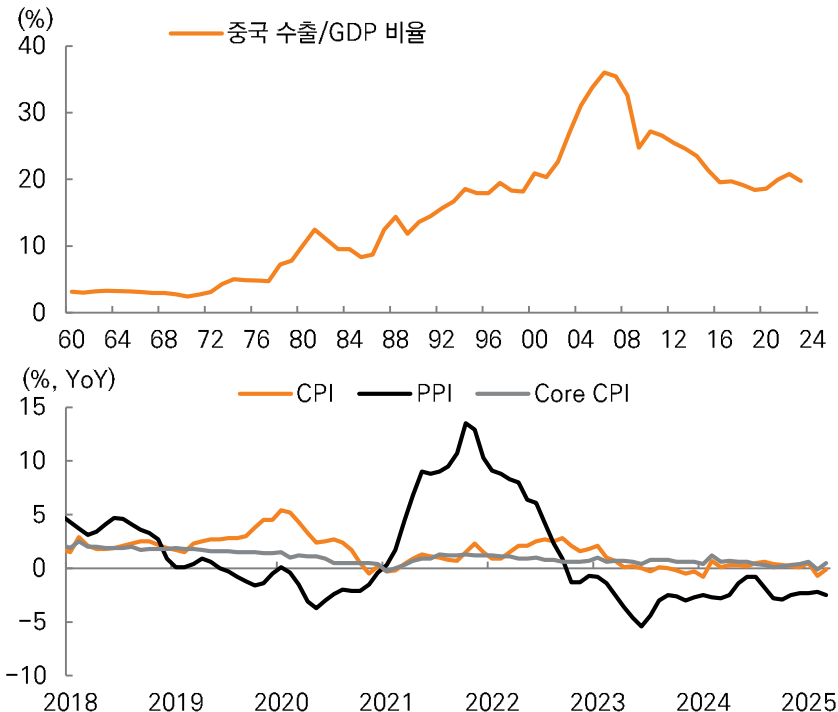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중국 협상: 중국의 협상 요인

중국 협상 요인: 부진한 내수 경제, 여전히 중요한 미국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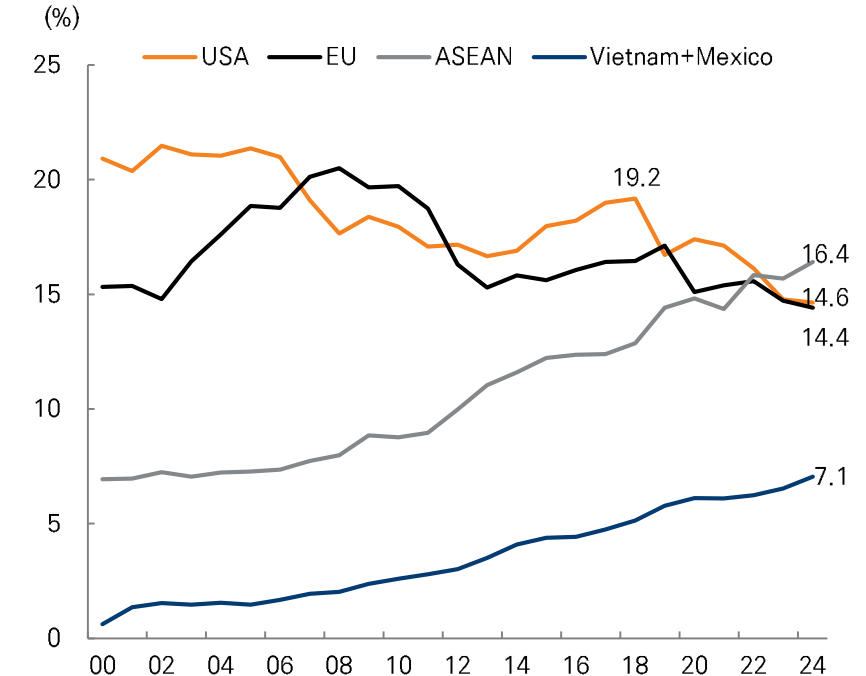
- 중국도 협상에 나설 이유는 충분. 내수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경기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출 시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 미국은 중국에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핵심 시장.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2018년부터 낮아졌음(19.2 → 14.6%). 그러나 우회 수출지로 부상한 베트남, 멕시코로의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
- 중국과도 결국 협상 국면으로 진입하겠지만 시간은 다소 소요될 전망. 미국이 선제적으로 상호 관세를 낮춰 주기를 바라는 모습

중국의 수출 의존도 여전히 높고 디플레이션 압력도 지속



자료: World Bank,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비중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 중국 무역 협상까지 시간 필요

미국과 중국 협상에는 시간 다소 소요: 관세 영향 제한적인 테마 중심 접근 유효

- 양 국 모두 협상과 합의의 필요성은 인식. 그러나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는 점이 협상의 걸림돌
- 트럼프 행정부는 내부적으로 대중 관세율을 50~65%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중국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먼저 상호관세를 폐지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 표명. 내수 부양책 추진 및 동남아와의 관계 강화 노력
- 미국과 중국은 결국 필요에 의해 협상에 돌입하겠지만 시간은 다소 소요될 수 있음. 협상 여부, 소요 시간에 따라 시나리오 차별화

트럼프 2기 미국-중국 무역 마찰 현황

날짜	미국의 관세 정책 발표	관세율(%)		날짜	중국의 대응 조치	관세율(%)	
		발표(발효일)	누적			발표(발효일)	누적
트럼프 취임 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 20%를 유지. 중국산 수입품 중 약 66%에 관세를 부과 전기차(100%), 배터리(25%), 태양광/웨이퍼(50%), 텅스텐/알루미늄(25%) 등에 고율 관세도 부과		20	트럼프 취임 전	약 60%의 미국산 품목(에너지 품목과 농기계, 트럭 등)에 관세 부과. 트럼프 1기 당시와의 변화 미미		21.2
2/1	펜타닐 명분으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 발표	10 (2/4)	30	2/4	보복조치로 139억 달러 규모의 일부 수입품(에너지, 농기계, 자동차 등)에 적용. 희토류 등 25개 물질 수출 통제와 구글의 반독점법 조사	10~15 (2/10)	22.6
2/27	펜타닐 명분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 발표	10 (3/4)	40	3/4	보복조치로 곡물, 육류, 유제품 등을 대상으로 관세로 대응	10~15 (3/10)	22.6
4/2	중국의 비관세 무역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상호관세 발표	34 (4/10)	74	4/2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전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 발표	34 (4/10)	56.6
4/7	중국이 보복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세율 50%p 인상 경고	50 (4/10)	125	4/10	미국이 50% 관세 인상을 확정하자 50% 보복 관세 발표 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증분 84%	50 (4/10)	106.6
4/9	중국 제외 모든 국가들에 대해 90일간 상호관세 유예. 중국에는 총 125%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관세율이 총 145%이며, 증분이 125%라고 정정(4/10). 상호관세가 펜타닐 관세 20%를 대체하지 않았기 때문	21 (4/10)	145	4/11	중국은 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84%에서 125%로 인상 다만 앞으로 관세를 계속 올린다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41 (4/12)	147.6
4/16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엔비디아의 H20는 수출시 허가가 필요		145	4/14	중국은 미국의 약점인 희토류 수출을 강화. 7개의 희토류 성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출을 금지		147.6
4/22	중국과의 대치 구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갈등 완화(de-escalation)를 기대한다는 입장. 이후 트럼프도 관세를 인하를 시사했지만 중국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언				미국과의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고 있으며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는 모두 허위라고 주장. 또한 미국이 먼저 상호관세를 폐지할 것을 요구		

주: 중국 누적 관세율은 무역 가중 평균 기준을 활용하는 PIIIE 수치

자료: 언론보도 종합, PIII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트럼프 1기 당시의 Phase 1 합의

1기 당시 합의 타임라인 리뷰: 트럼프와 시진핑과의 회담 성사가 중요

- 트럼프 1기 당시 초기에는 양국은 빠른 속도로 보복 조치를 발표. 트럼프와 시진핑과의 회담 후 협상이 본격적으로 모멘텀을 얻는 모습
- 이번에도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이나 통화를 성사가 중요할 전망. 양국 정상에 모두 참석하는 대형 국제 이벤트에 주목
- 중국과의 최종 합의는 1기에 성사된 Phase 1 합의와 유사할 가능성.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 구매 확대와 지적재산권 침해 제약이 핵심
- 2020년 코로나 위기를 겪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은 Phase 1 합의를 불이행. 미국은 Phase 1에 추가 조건을 요구할 전망

트럼프 1기 관세 타임라인

일자	내용
18.4.3	트럼프 행정부는 25% 관세 부과 대상인 1,333개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 규모 목록을 공개
18.4.4	중국은 보복 조치로 106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
18.4.5	미국, 1,000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 부과 검토
18.6.5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월 대비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 확대 규모 500억 달러
18.6.15	중국도 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보복 발표
18.8.23	미국과 중국 모두 2차 관세 발효. 추가 16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18.9.24	미국과 중국 모두 3차 관세 발효.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중국은 600억달러 수입품에 관세 부과
18.12.1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90일간의 휴전에 합의. 중국이 상당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구매를 약속한 뒤 추가 협상을 가지기로 합의
19.5.10	협상이 결렬되며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부과된 10% 관세를 25%로 인상. 중국도 6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예고
19.5.13	중국은 보복 조치로 6월 1일부터 관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
19.6.29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다시 휴전에 합의
19.8.5	위안화가 7달러 이하로 내려가면서 미국은 중국을 '화폐 조작국'으로 지정
19.8.23	중국, 75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발표
19.9.1	미국은 예고대로 12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발효
19.9.11	중국, 일부 품목을 관세에서 면제. 트럼프도 10월에 발효 예정인 25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대한 관세 유예. 중국 건국 70주년을 피하기 위한 제스처
19.10.11	트럼프, 10월 관세 철회, 중국과의 1단계 합의 언급
19.12.13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1단계 합의 발표
20.1.15	양국 1단계 합의 공식 서명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Phase 1 합의 주요 내용

구분	분야	내용
미국	관세	19년 12월 15일 발효 예정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계획 연기 19년 9월 1일 부과된 1,100억 달러 규모 품목에 대한 관세 15%에서 7.5%로 인하 기존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25% 그대로 유지 미·중 협상 1단계 합의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19.6%에서 17.8%로 소폭 인하 *미국의 대중 평균 수입관세율: (2018. 7. 1 이전) 3.1% > (2019. 5. 10) 16.0% > (2019. 9. 1) 19.6% > (합의문 발효 후) 17.8%
		19년 12월 15일 발효 예정 3,361개 품목에 대한 4차 추가 수입관세 실시 보류 19년 12월 15일 발효 예정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도 중단 19년 9월 1일 발효된 최대 10%의 추가관세를 포함 기존 추가관세는 유지 *중국의 대미 평균 수입관세율: (2018. 7. 1 이전) 7.5% > (2019. 5. 10) 27.7% > (2019. 9. 1) 31.1% > (합의문 발효 후) 31.1%
중국	수입량 확대	공산품 777억 달러, 농산품 320억 달러, 에너지 524억 달러, 서비스 379억 달러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신설 및 하한선 완화 지재권 소송 시 손해 입증 책임 삭제 및 전자침입·내부유출도 침해행위로 명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단속 강화
	기술이전	시장진입을 조건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및 압박 관행 철폐 합의 행정절차에서 투명성, 공정성, 적법성 절차를 제공하고, 시장에 의해 기술 이전 및 인허가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약속 투자 심사나 행정 절차를 통한 기술 압박 금지
	금융/환율	환율 조작 방지를 위한 IMF·G20 약속 재확인 및 투명한 외환 정보 공개 약속 은행/증권/보험 및 신용평가서비스를 포함한 미국 금융사의 거래 및 투자 장벽(외자 지분 한도 및 차별적 규제) 제거

주: 수입량 확대는 17년과 기준 20년~21년 2년간 증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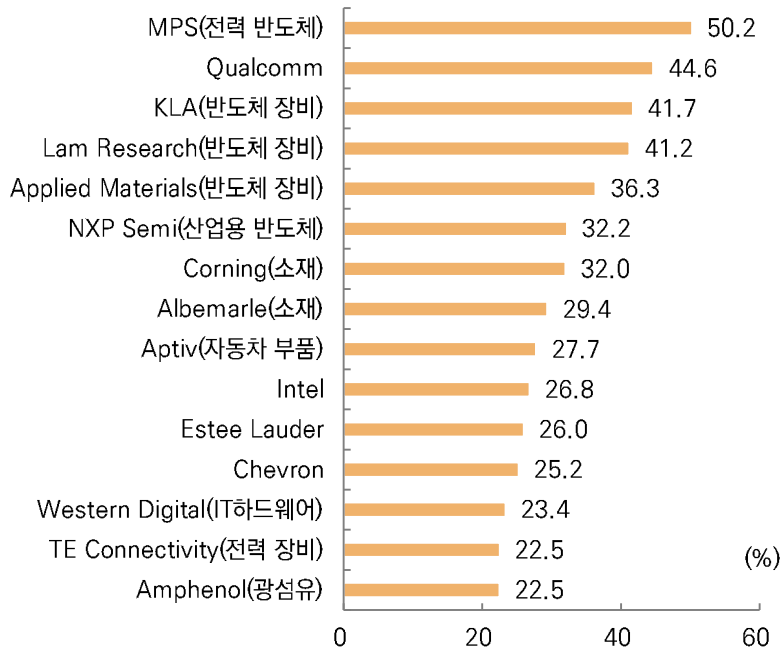
자료: USTR, 미래에셋증권

중국에 노출된 분야는 경계

중국 노출도가 높은 분야는 일부 IT하드웨어, 산업재, 소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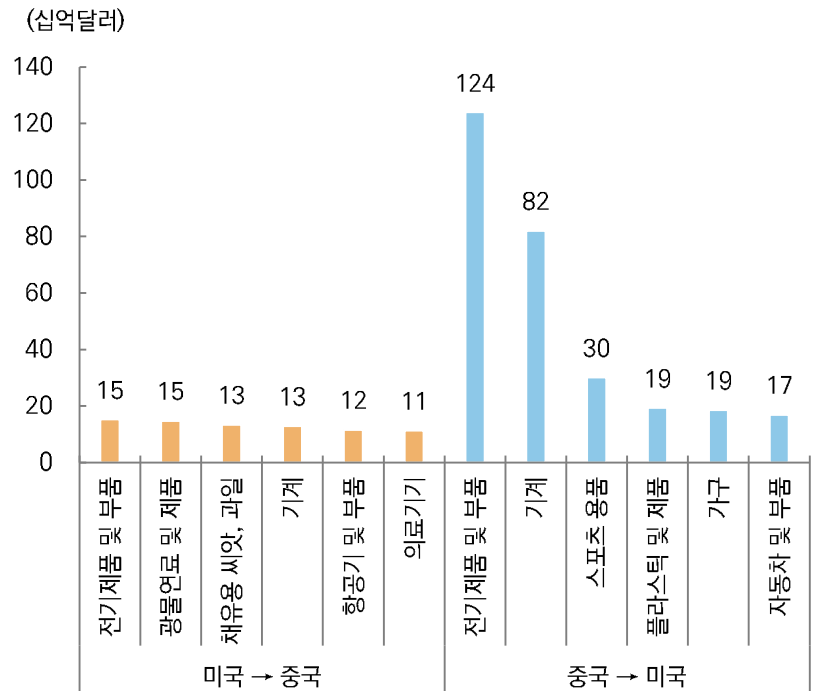
- 중국 매출 비중 기준으로는 반도체 장비, 테크 하드웨어와 전력 관련 산업재, 에너지 기업들이 포함.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과도 유사
-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게도 부정적. 주요 수입 물품 기준으로 보면 IT 제품들과, 스포츠 용품을 비롯한 각종 내구소비재들을 수입해 판매하는 소매점들이 노출
- IT 관련 제품들에 대한 상호관세는 면제됐지만 추후 반도체 관련 관세 부과시 같이 적용될 예정.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를 준비 중

S&P500내 중국 매출 비중 상위 기업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과 중국 상품 수출입 규모(2024)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트럼프 관세 시나리오별 영향

트럼프 관세 정책 시나리오별 영향

시나리오	시나리오 전개 방향	경제 영향(미국 GDP, 2034)	인플레이션(PCE)	주식	10년 금리/달러
Base	- 미국-중국은 결국 협상에 돌입. 다만 양국간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 진척 속도는 더딘 편. 최종 목표는 트럼프 1기 당시 체결됐던 Phase 1딜과 유사한 형태의 합의 - 다른 주요국들과도 합의하는데 성공. 필요할 경우 90일 유예 기간 연장 - 글로벌 대상 보편적 10% 관세와 섹터별 관세는 유지 -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변동성 발생할 수 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 확인이 긍정적 - 정책 불확실성 낮아지며 미국 주식, 국채 등 달러 자산 변동성도 안정화	예상 GDP 영향: -0.3% 관세 부과 이전 2034년 GDP 수치 대비 변화 가장: 섹터, 보편적 관세 유지 글로벌 10% 관세 유지 철강, 자동차 등 섹터 관세 유지	PCE 영향: 0.5%p 가정: 월러 연은 총재는 대부분의 관세가 해제될 경우에는 연중 인플레이션이 3%(현재 2.5%)에 머물 것을 전망	미국: 회복 변동성 잔존하나 정책 불확실성 낮아지며 점진적으로 회복	10년 금리: 횡보
				미국 외 글로벌 > 미국 관세 합의 시점에 따라 퍼포먼스 차별화. 먼저 합의할수록 유리	달러 인덱스: 횡보
Worst	- 중국과의 마찰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예 기간내 일부 주요국들과의 합의에도 실패 - 특히 EU와의 협상이 실패하며 EU와도 갈등 고조. EU는 준비해 놔던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미국도 대응 - 경기 침체/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고조 - 4월초 나타났던 미국에서의 자금 유출 현상 재개되며 주식 하락, 금리 상승, 달러 하락 흐름 전개 - 각국의 부양책 규모에 따라 국가별 퍼포먼스 차별화 예상. 경기 부양 규모 클수록 관세 영향을 최대한 상쇄	예상 GDP 영향: -1.0% 2025년 GDP는 -1.1%p(YBL) 가정: 발표된 모든 관세 발효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20%), 상호관세(125%) 유지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효, 각국의 보복 조치 영향도 포함 철강, 자동차 등 섹터 관세 유지	PCE 영향: 2.5%p (단기적) 가정: 월러 연은 총재는 지금까지 발표된 관세(실효 관세율 25%)가 모두 적용되면 인플레이션은 단기간내 5%에 근접할 것을 전망	미국: 하락 달러 자산 변동성 증폭되며 약세 압력 강화	10년 금리: 상승 미국 자산에서의 자금 유출 가속화
				미국 외 글로벌 > 미국 약세 압력 강화 각국 부양책 규모에 따라 낙폭 차별화	달러 인덱스: 하락 미국 자산에서의 자금 유출 가속화
Best	- 미국-중국은 단기간내 협상에 돌입하면서 연내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 - 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이 30~40%대(펜타닐 관세만 적용)로 낮아지고 중국은 미국산 수입 증진을 약속 - 다른 주요국들과의 합의에도 성공. 보편적 관세도 유예 - 관세 관련 불확실성 해소되며 경기 침체 우려 빠르게 완화. 인플레이션도 안정되며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 - 낙폭이 컸던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빠르게 반등	예상 GDP 영향: -0.1% 미만 가정: 섹터별 관세만 유지 철강, 자동차 등 섹터 관세 유지	PCE 영향: 0.1%p 가정: 관세 영향이 섹터에 한정될 경우 실효 관세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PCE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0.1%p 미만	미국: 상승 정책 불확실성 해소되며 빠르게 반등	10년 금리: 하락 미국 자산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되며 자금 유입
				미국 외 글로벌 < 미국 관세로 낙폭이 컸던 미국이 빠르게 반등	달러 인덱스: 상승 미국 자산 불확실성 및 경기 침체 우려 해소

주: Base와 Best는 보스런 연은, Worst Case는 Waller 연준 이사 인용. GDP는 기존 Trend 대비 변화율

자료: Tax Foundation(GDP), Yale Budget Lab(GDP, Worst),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PC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ETF 관심 리스트

대체 가능한 국내 ETF

- AI칩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 1Q25 구글과 TSMC 실적은 긍정적
- 관세 영향 제한적인 방산과 테마 주목. 유럽에서의 구매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우려와 달리 방위비 증진될 전망
- 대중 관세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저가소비 테마 관심. 소액 물품에 적용되던 면제 조항 폐지되며 Shein, Temu 등 불리
- 낮은 수출 의존도와 높은 내수 경제 성장성을 가진 인도도 주목. 추가 정부 차원 지원이 기대되는 중국 테크에 대해서도 긍정적 관점 유지

국내 ETF 관심 리스트

ETF	테마	국내 ETF 티커	대체 ETF명	AUM (십억원)	수수료 (%)	Top 10 비중 (%)	수익률 (%)		
							1M	3M	YTD
AIQ	소프트웨어	381170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2,968	0.6	100.0	-4.2	-15.9	-17.9
2837	항생테크	371160	TIGER 차이나항생테크	967	0.2	69.2	-10.5	8.6	8.5
NDIA	인도	453870	TIGER 인도니프티50	590	0.3	56.4	1.6	6.0	-0.5
PAVE	인프라/전력	491010	TIGER 글로벌시인프라액티브	59	0.6	59.5	0.9	-28.8	-16.6
2820	중국 바이오	371470	TIGER 차이나바이오테크 SOLACTIVE	38	0.6	64.6	-4.8	18.5	11.7
SHLD	방산	494840	TIGER 미국방산TOP10	21	0.5	100.0	-2.4	1.0	2.1

주: 4월 28일 기준, AUM 순으로 정렬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